

배당금 지급을 위한 본사차입 가능여부와 세무리스크 문의

Q 당사는 현재 유동성 부족으로 2022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금을 현시점까지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본사에서는 "단기차입을 해 줄테니 배당금 지급을 지체없이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거래형태(차입을 받아 배당지급)가 세무당국관점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여 차입금 이자비용을 부인 받을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세법에 근거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일반적으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시 정상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이율로 자금차입하면 차입행위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고자산 실사 후 장부 수량 및 실사재고 차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업체측에 손실비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Q 12월 말 기준 재고자산 실사 후 장부 수량 대비 실사재고 적은 것에 대해 매입처에 손실비 청구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23년 1월로 발행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보상성격의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손해배상이나 보상성격의 대금청구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Q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원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해당 직원이 회사에 중간정산신청을 요구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또는 2021.12.31 일자로 퇴사후(퇴직금 지급) 다시 2022. 1월에 재입사 해도 정당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수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A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이

아니고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대여에 따른 인정이자율만큼의 이자를 받아야 하며 이자를 받지 않거나 인정이자율보다 적은 이자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2021년 12월31일 퇴사후 2022년1월1일에 재입사가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직원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산매각

- Q** 자산매각 관련 문의 드립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 시 자산 매각거래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세를 확인 후 매각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월에 사고 익월에 바로 매각할 경우에도 감정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한달간격으로 매각 시에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매각 가능한지...
- 회신 부탁 드립니다.
- A** 특수관계자간 거래시에는 시가로 거래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시가로 거래하면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D/B 형 퇴직연금 적립시 회계처리

- Q** D/B 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로서 ,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을 초과하는 퇴직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자산계정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A** DB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이미 자산계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액 초과 불입액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